SK이노, 정유 수익성 기반 미래 에너지사업 경쟁력 강화

2분기 매출 29.1조, 영업익 3.4조
SK온·SK엔무브 실적 뒷받침

북미 생산거점 활용 ESS 수주 확대
호주 바로사 가스전 등 기반 확장

SK이노베이션 E&S의 LNG수송선이 23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싣고 보령 LNG터미널에 처음 입항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SK이노베이션이 에너지 사업 전반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유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배터리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에서 확보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LNG·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업 전환을 뒷받침할 수익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9조1572억원, 영업이익 3조4873억원을 기록했다. SK온이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SK엔무브와 석유사업도 견조한 수익성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SK온은 판매량 확대와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증가, 고객 보상금 반영에 힘입어 영업이익 8218억원을 거뒀다. SK엔무브도 중동 경쟁사의 공급 차질로 고급 윤활기유 마진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691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분기 실적에는 전사 기준 1조1949억원의 재고 관련 이익을 비롯한 일회성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효과가 줄면서 영업이익 규모도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세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요처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SK온은 북미 생산 거점을 활용해 전기차와 ESS 물량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글로벌 ESS 수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올해 글로벌 ESS 수주 목표는 20기가와트시(GWh) 이상이다. 국내에서는 약 1.8GWh 규모의 장주기 ESS 물량을 확보했으며 북미 고객들과도 10GWh가 넘는 공급계약을 협의하고 있다.

LNG·전력 부문에서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의 상업 생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사 가스전은 올해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1050메가와트(MW) 규모의 용인 발전소는 2030년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LNG 생산부터 발전, ESS까지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에는 일회성 이익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이후 이익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국제 원유 공급이 빠르게 늘기 어려운 데다 블루오벌SK 합작법인 종료에 따른 비용 절감과 윤활유 사업의 높은 수익성이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용 ESS 수주와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가 확대되면 SK온의 공장 가동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Z 폴드8, 신기록에 실속까지… "출하량 24% 늘 때 매출 48% '껑충'"

삼성전자, 고가제품으로 성장축 이동
국내 사전판매 144만대 최다 기록

폴더블폰 글로벌 점유율 32% 전망
흥행요인에 가격 경쟁력 등 꼽아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에서 공개된 '갤럭시 Z 플립8',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등 폴더블 신제품 3종.

갤럭시 폴드 8 이미지. /구남영 기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팔린 대수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두 배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가 국내 사전 판매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 시장 성장의 축이 물량 확대에서 고가 제품 비중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약 2750만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매출은 약 44억 달러로 48%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 증가율이 출하량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가격대별 구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폴더블 3대 중 1대꼴이던 1600달러 이상 제품 비중이 올해 60%까지 확대되는 반면 1200달러 이하 제품은 절반 이상에서 30%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판매가격(ASP)도 18%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제품 형태도 고가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북타입 비중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65%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위아래로 접는 클램셸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보급형으로 밀려나고 있다.

완제품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폴더블 완제품 출하량이 전년 대비 21% 늘어나고 브랜드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32%, 애플 25%, 화웨이 24% 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폴드8 시리즈 성적은 이런 흐름을 국내에서 확인시킨 사례로 꼽힌다. 전일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국내 사전 판매가 144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당 약 140대가 팔린 셈으로 2019년 갤럭시 노트10이 세운 종전 최다 기록 138만대를 7년 만에 넘어섰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대 3 화면비를 적용한 갤럭시 Z 폴드8의 판매 비중은 70% 수준으로 신규 폼팩터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삼성닷컴 사전예약 고객 중 1030세대 비중이 절반에 달했으며 폴드8 울트라·폴드8을 구매한 1030 여성 고객 수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는 흥행 요인으로 칩플레이션 여파 속에서도 ▲글로벌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더블 스토리지 할인 ▲강화된 갤럭시 AI 구독클럽 프로그램을 꼽았다. 사전 판매 기간 삼성닷컴에서 자급제 모델을 산 고객 2명 중 1명이 구독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수는 하반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폴더블 패널 출하량은 재고 조정과 신제품 출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약 390만대에 그쳤고 연간 물량의 약 64%가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1분기 패널 점유율은 BOE가 약 45%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2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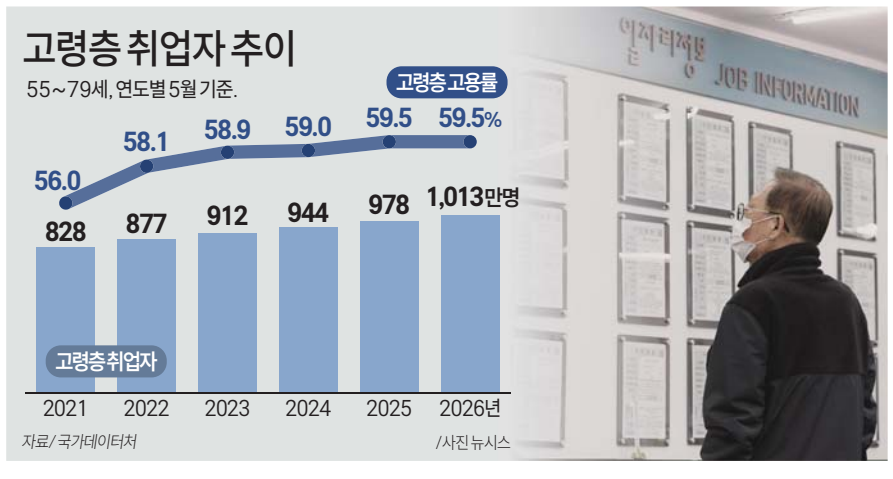
폴드8 시리즈는 지난 4일부터 순차 개통에 들어갔으며 오는 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애플도 하반기 첫 북타입 폴더블 출시가 예상돼 하반기 성적이 올해 폴더블 시장의 반등 폭을 가를 전망이다.

타룬 파탁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리서치 디렉터는 "저가 및 중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부품을 중심으로 공급 타이트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중 시장 전반의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조사들이 물량 확대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고부가가치 제품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령층 취업자 1000만 시대… 평균 53세에 최장근무 직장서 퇴직했다

데이터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4년째 60%대
65~79세 취업자, 전년比 32.6만명↑



/사진 뉴시스

정부가 고령층으로 분류한 55~79세 인구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대에 들어섰다.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시점의 나이는 평균 53.0세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3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2000명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뒤 4년 연속으로 60% 선을 넘겼다.

특히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4만5000명 증가한 1012만5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65세 이상이 이끌었다. 65~7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32만6000명 증가한 411만8000명으로 전체 고령층 취업자 증가분의 94%를 차지했다. 반면 55~64세 취업자는 600만7000명으로 2만명 증가에 머물렀다.

이들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사회·복지 14.8%, 제조업 12.0%, 도소매업 10.0% 순으로 컸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서비스 종사자가 15.3%로 뒤를 이었다. 관리자와 판매 종사자 비중은 각각 2.1%, 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55~64세에서 0.4%p 오른 71.5%, 65~79세에서 0.6%p 오른 47.8%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퇴직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남성은 55.3세, 여성은 51.1세였다. 퇴직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31.4%, 40대 15.0% 순이었다.

고령층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0.5%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다. 이들의 현재 평균 연령은 62.6세로 전년과 같았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8.2세로 가장 높았고, 광·제조업이 61.2세로 가장 낮았다.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 7.1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증가했다. 남성은 21년 8.6개월, 여성은 13년 7.1개월이었다.

근속기간별 비중은 10~20년 미만이 2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년 이상 22.5%, 20~30년 미만 19.9%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